



연중 제22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뜨거운 감자

사제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교리적 혹은 신앙적 질문이 아니라, “신부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입니다.

신자들이 사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먹는 행위는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먹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율법 학자들의 논쟁을 봅니다.

그것은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올바른 실천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에 대한 실천은 외적인 준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의 근본정신, 즉 하느님의 뜻에 맞는 내적인 삶의 일치입니다.

하지만 논쟁의 대상에 있던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중요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통은 전통이 생긴 원인은 상관없이 모두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깐 그 전통이 하느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모습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공존하는 이 전통은 이유를 막론하고 습득된 것이어서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반박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전통을 파괴하거나 폄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전통을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었습니다.

전통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력을 다해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전통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과연 현재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뜨거운 감자인 전통이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애초의 뜨거웠던 기억이 내 삶으로 전달되고는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윤호 베드로 신부 | 호계분당 주임



제 1 독 서 신명 4,1-2,6-8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 서 야고 1,17-18,21-22,27

복 음 마르 7,1-8,14-15,21-23

주일 진레

공동의 집에서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가톨릭 교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1989년부터 이날을 거행해 왔고, 세계 교회 협의회(WCC)에 속한 여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동참해 왔습니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 역시 9월 1일부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10월 4일)까지 다섯 주간을 ‘창조 시기’로 정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구체적 행동을 알리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과 창조 시기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조화와 질서가 깨어진 자연에서 생겨나는 온갖 피해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오늘, 피조물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 뜻에 맞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성찰하며 ‘생태적 회개’를 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신앙인의 당면 과제이며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은 2050년을 전후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기 전에 탄소 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막기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염 물질의 배출로 공동의 집인 지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고통받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기물을 줄이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그 속도가 느립니다. 분해되지 않고 지구의 어디엔가 계속 쌓여 가는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폐기물을 줄이고 그 발생 원인을 차단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며, 우리나라 서해안과 마주한 중국의 해안을 따라 대규모로 건설되는 핵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핵폐기물이 계속 쌓여 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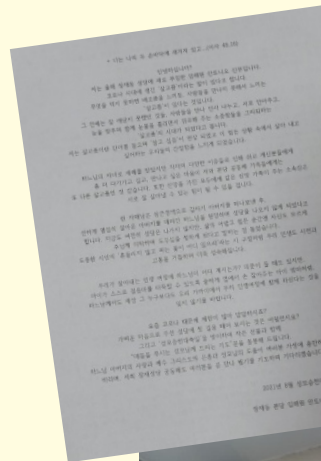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해마다 이 기도의 날이 기도, 묵상, 회개와 알맞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실천에 앞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며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 제정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구와 본당과 수도회, 각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와 구체적인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식과 활동을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 안에서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입의 시급성’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2021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

장재동본당 쉬는 교우 편지와 선물 전달

장재동본당(주임: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본당 내 쉬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격려 편지와 작은 선물 나눔을 실시하였다. 장재동본당은 매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본당 신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친교의 시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럴 수 없게 된 지 2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이번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본당 사목회의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 맞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는 신자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 편지와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날 교중미사 중에는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세례를 받은 가족들은 올해 3월, 신자가 되고자 성당에 스스로 찾아와 대면과 비대면 교리를 통해 장재동본당의 가족이 되었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박지현

소화 데레사와 함께한 작은 길 45일의 기적

이 책은 산티아고 순례기이면서 소화 데레사의 영성, 곧 작은 길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영성 서적이다. 아울러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용서와 화해, 그를 통해 부부관계의 치유와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낸 신앙 체험 고백이기도 하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작은 꽃, 소화 데레사의 손을 잡기로 했다.”

이 책은 순례의 여정을 소화 데레사의 영성, 곧 작은 길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로 묵상하고 성찰한 독특한 산티아고 순례기이다. 남편과 함께 건강 등의 문제로 많은 구간을 걷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느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린 기적 같은 이야기, 오랫동안 부부가 잃어버렸던 작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한 치유의 체험,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유함을 받아들이게 된 행복, 순례지에서 만난 작고 소소한 일들과 다양한 만남에서 발견한 깨달음과 감사를 담고 있어 영성적인 깨우침과 감동을 주며 순례에 나설 용기도 준다.

하느님 나라와 ‘공정 사회’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마태오복음 20,1-16의 말씀은 일을 더한 일꾼에게나 덜한 일꾼에게나 똑같은 삯을 나누어 주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정의 관점으로 읽기에는 참으로 꺾끄럽고 불편하다. 당시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던 민중들에게는 더더욱 수긍하기 어려웠을 듯하다. 예수가 살았던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은 땅을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 당하던 히브리 민중들의 피눈물이 서린 장소였다. 총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부유한 엘리트들은,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던 소규모 농장들을 합병하여 거대한 포도원으로 개조한 후, 거기서 수확된 포도주를 로마로 보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현금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3년이나 지나야 쓸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포도 농사의 특성 때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고 늘어가는 빚과 높은 세금은 그들을 헤어내기 힘든 가난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이렇듯 소수 엘리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민중들의 삶을 수탈하던 대표적인 장소가 포도원이었으니,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리 촌사람들은 포도원이란 단어만 들어도 넋더리가 났을 것이다. 예수는 왜 굳이 비유의 배경으로 포도원을 선택했을까?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고통이 팽배한 냉혹한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다른 세상을 찾아 나가는 비전이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비유를 곰곰이 짚어 보면 더 당혹스럽다. 우선 이 포도원 주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사람이다. 이윤을 내기보다는 일감을 창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이 기이한 농장주는, 청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킨다. 아홉 시쯤 다시 장터에 나가니 노동자들이 더 있기에 그들도 데려와 일을 시킨다. 열두 시, 오후 세 시,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도 나가보니 그때도 일을 찾는 이들이 있어 그들 또한 포도원으로 데려온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마지막 고용은 손해가 막심할 불필요한 고용이다. 상식적인 고용주라면 인력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선택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한식경 일 시키자고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에서 저만치 밀려난 이들에게 과연 일할 ‘능력’이나 있을까. 그러나 이 농장주는 그들이 뒤쳐진 이유를 묻지 않고 일감을 준다. 일을 마감할 저녁 시간이 되자, 주인은 노동자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주는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 그뿐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자들을 가장 먼저 불러 삯을 지불한다. 이쯤 되면 거의 의도적으로 먼저 온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피약별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20,12)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인데, 주인의 행동은 공정치 않다. 더구나 줄조차 뒤에 세워 무시하다니, 능력과 효율성에 자존심을 걸어온 자신들의 가치조차 무시 받는 듯하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온 일꾼들과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노동의 정의(正義)’와 ‘공정’에 대한 관점이 대립하는 것을 본다. 일꾼들은 개인의 능력과 그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데 따른 실적이 임금을 받는 기준, 즉,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장한 몸과 숙련된 기술로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가장 먼저 선택되어 하루의 일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자신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어 현장에 늦게 도착해 고작 한식경 일한 자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 즉 ‘시험과 스펙의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포도원 주인은,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시장에 나와 경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험을 잘 보고 화려한 스펙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의 차이가 과연 공정한가 의심한다. 그는 여러 차례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 경쟁에서 도태된 노동자들을 만난다. 일감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실업자들의 처지를 알고 있고, 취업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겪는 상실감과 굴욕, 빈곤의 악순환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시혜적 온정주의’와는 다르다. 그는 스펙이 부족하여 시험에서 떨어진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거저 쥐어 주지 않았다. 적선하는 대신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땀 흘린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이윤을 포기함으로써 뒤쳐진 노동자들이 잃었던 혹은 확보하지 못했던 노동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정의를 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항의하는 실력자들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며 말한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요.”(20,16) 요즘 말로 바꾼다면 어떨까 - 당신이 가진 능력이 오롯이 당신의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당신처럼 실력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저이들이 놓인 상이한 처지와 삶의 조건, 저이들이 품고 있는 아직 펼칠 기회조차 없었던 가능성과 잠재력을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받을 몫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동료들이 받아 가는 몫에 불평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시오. 부끄럽지 않소 -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느님 나라는 이 이상한 주인을 둔 포도원과 같은 나라라고, 예수는 말한다. ‘우수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혜택과 기회를 몰아 주고, 사회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신체적 조건과 양질의 교육과 풍족한 환경을 갖지 못해 ‘열등’해진 이들을 무한 경쟁에 빠뜨리는 사회는 하느님 나라와 멀다. 공정 사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진 이 무간지옥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위치를 체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시험과 스펙을 앞세운 이러한 공정 사회 담론의 가장 큰 폐해는 선택된 소수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라 믿으며 서로 적이 되어 밀치고 싸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 담론에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끊임없는 성폭력, 20대 청년들의 자살 시도율,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박탈, 노인 소외,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성소수자 채용 과정과 직장 내 차별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경험하는 노동과 삶의 부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예수는 말한다. 이 ‘공정 사회’에서 가장 뒤쳐진 이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될 것이라고.

그림 ▶
THE STORM,
(John August Swanson, 2020)





일림



교구장 동정

우리농 직매장 축복식

일시: 8월 30일(월) 11:00

장소: 창원 어반브릭스 우리농 직매장

사제평의회(화상 회의)

일시: 8월 31일(화) 10:30

교구/본당

사제평의회(화상 회의)

일시: 8월 31일(화) 10:30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9월 2일(목) 11:00

장소: 교구청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를 비대면('ZOOM')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마산, 창원지구- 9월 5일(주일)

13:30~17:30

진주, 거제지구- 9월 12일(주일)

13:30~17:30

주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루카 24,15)

강사: 윤만근 모세 신부(살레시오회)

내용: 청소년 신앙 여정 동반자 교리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PC, 태블릿 PC, 스마트폰), 필기구

신청: 8월 29일(주일)까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부'

▶유의사항

• 'ZOOM' 접속 방법과 링크는 연수 전일 문자로 안내하겠습니다.

•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데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 화면 이탈, 이등은 연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데이터 소모량이 많으므로 WiFi 권장합니다.

• 장시간 'ZOOM'을 사용해야 하므로 PC와 태블릿 PC를 권장합니다.

• PC 사용 시, 웹캠과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52차 선택주말

일시: 10월 16일(토)~1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46차<2016년 11월>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신청: 9월 23일(목)까지

문의: 장혜민 리따 010·4288·2698

▶위원회/기관/단체

208차 ME주말 안내(일정 변경)

일시: 9월 10일(금) 19:00~12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9월 3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9월 5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가드

힐데가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일 립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기 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접수: 9월 13일(월)~30일(목)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문의: 061·432·9241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8월 23일(월)~2022년 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문의: 02·828·3600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접수: 9월 10일(금)~14일(화)
문의: 043·270·0100~0102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접수: 9월 10일(금)~10월 4일(월)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202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접수: 9월 10일(금)~14일(화)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모집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입학사정관 권혁민(루카) 051·510·0705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si.cup.ac.kr)참조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모집인원: 3,045명(수시 2,796명)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설(전면 온라인강의)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3년만에 졸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다양한 장학혜택 및 저렴한 학비
문의: 053·850·2580(입학상담)

순례로 함께하는 회년의 기쁨 - 9월애 동행
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기간: 8월 15일(주일)~9월 26일(주일)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방법: '순례자 여권세트' 구입⇒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텐프 찍기⇒완성한 여권을 '순교자 성월을 달는 미사'에 제출하고 축복장 받기
비고: '순례자 여권' 세트 판매금 전액 기부, 온라인 구입 가능

문의: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02·727·2527

※홈페이지(www.martyrs.or.kr) 또는 네이버 "순교자현양위원회" 검색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메달(2차) 안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메달'(2차)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용: 금메달 I(순금 31.1g)
가격: 3,520,000원-수량(한정) 200장
내용: 금메달 II(순금 15.55g)
가격: 1,760,000원-수량(한정) 1,000장
내용: 동메달(리패키징 상품)(동 26g)
가격: 49,500원-수량(한정) 8,000장
내용: 문진메달(동 390g)
가격: 297,000원-한정수량 없음
문의: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마음, 비워지나?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다가올 때에도 ‘그래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노!’ 하면서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도 합니다. 사찰을 방문해도 참 자아를 찾기 위해 먼저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비우는 것일까요? 욕심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하던 시절, 도시 근교에 있는 동방 정교회 수녀원을 여러 곳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들께서 수도생활과 영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 (obedience)’의 영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과 수도회 장상에게 순종하는 가톨릭 수도자의 영성과 비슷하다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저 나름대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Kenosis, self-emptying)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리피서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2,6-8)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순종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겐세마니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라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름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성모님께서도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님 탄생 예고 소식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성모님의 순종이 바로 자기 비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비움은 단순히 욕망을 없애거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성당에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선행을 할까 말까’, ‘용서를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점점 비워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비워진 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영적인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행하여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식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 놓고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별을 위해 영적 지도자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 가서 결국 자신의 뜻을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주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와 배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고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비워지는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막힘없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숙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함께 살게 됩니다. 자신도 예수님 없이는 미숙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신자라고 반드시 욕심 없이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미숙한 이들을 만나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요?